

환동해권의 중심대학 강릉대학교, 지역화를 바탕으로 국제화 실현

임 승 달 | 강릉대 총장

■ 강릉대학교 개황

강릉대학교는 훌륭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 위치하고 있다. 1946년 개교한 이래 강릉사범학교, 강릉교육대학을 거쳐 오늘의 강릉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도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2001년 개교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강릉대학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제 2의 개교를 선포하며, '환동해권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인간화 대학', '지식정보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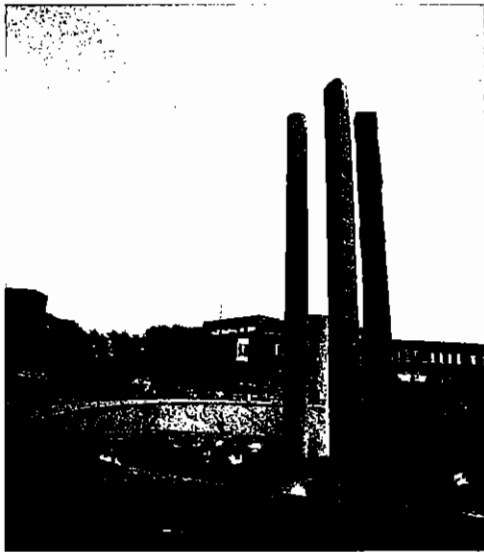
학', '지역화 대학', '세계화 대학'을 실현시킬 것을 대내외적으로 약속하였다.

강릉대학교는 동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이용하여 관광, 환경, 해양, IT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권을 연결하는 국제 교류 거점 대학으로서 13개국 23개 대학과 학술자매 협정을 체결, 학생 및 교직원 교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강릉대학교의 노력은 대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세계 속의 대학으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 강릉대 전경



▲강릉대 상징 조형물

■ 대학 안내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강릉대학교에는 7개 단과대학과 3개 학부(14개 전공)·31개 학과, 총 44개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각 분야의 프로를 키우고 있다.

- 한국 및 세계의 문화와 역사, 언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문대학
- 행정, 사회, 관광, 경제 분야의 복잡다단한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를 길러 내는 사회과학대학
- 순수 자연과학을 연구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에 봉사하는 기초과학자를 양성하는 자연과학대학
- 환동해권 시대에 적합한 해양생명 및 환경, 차세대 식품 등을 개발하는 생명과학대학
- 첨단 IT 분야와 신소재, 정밀기계, 토목 등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공과대학
- 미래 사회에서 각광받는 문화, 레저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예술·체육대학

-해마다 40여 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치과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연구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교육하는 3개의 특수대학원, 즉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등 총 4개의 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어, 각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을 길러 내고 있다.

또한 강릉대학교는 재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지역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매학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취미·레저·어학·자격증 취득·문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배움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 대학 특성화 분야

강릉대학교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점 육성하고 있는,

- 해양생명 분야(BT)는 천연적인 입지 여건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관련 학과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차세대 의약품과 식품 등을 개발하여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동해안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 정보 전자분야(IT)는 충실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두뇌한국 21의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어 교육 및 연구가 활발하고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며, 학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 관광·레저 분야는 새로운 세기의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환동해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연계하는 국제적인 관광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주도하고 있다.

■ 풍부한 장학제도, 우수한 복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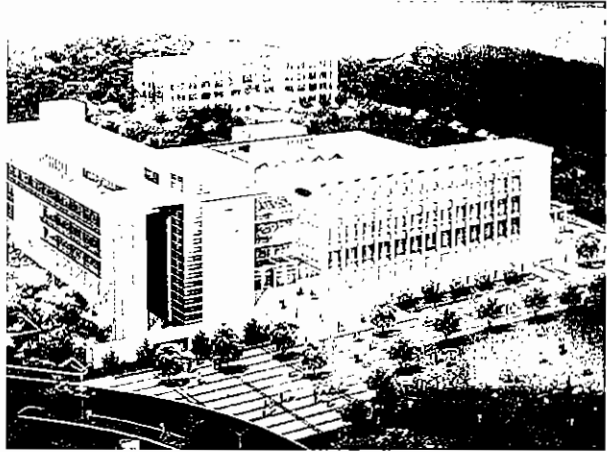
강릉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수업료가 저렴하고 학생 2명 중 1명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정도로 풍부한 장학제도가 있다. 또한 7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늑한 기숙사와 서점, 문구점, 골프장, 식당, 매점, 제과점, 미용실 등이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선도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전공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 실용화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 배출에 주력하는 등 한국의 교육개혁을 선도하여, 1999년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2001년 교육부문 자율화 최우수대학 선정, 2001년 내부 혁신 추진 우수대학, 1999~200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국가와 함께 첨단 기술 개발 및 지원

정부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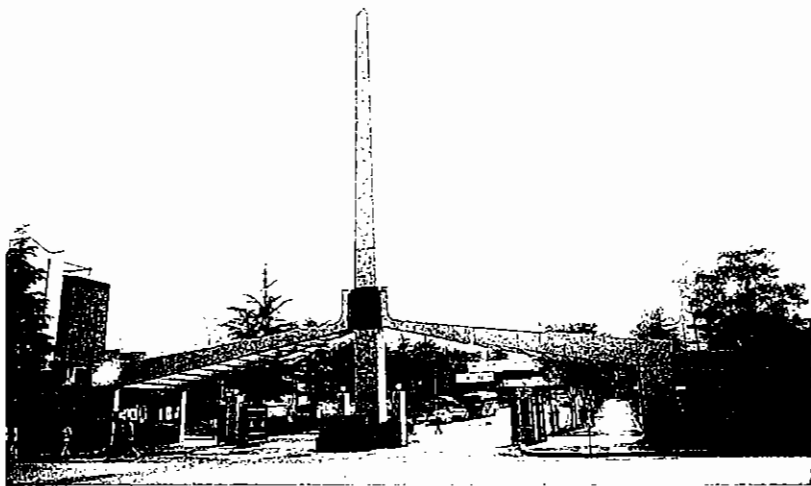
▲ 학술정보 센터 조감도

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창업보육 센터, 중소기업기술지원 센터, 동해안지역해양생물자원연구 센터, 전자상거래지원 센터, 과학영재교육 센터, 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 센터, Trade Incubator, 환동해연구 센터, 환경문제연구 센터 등의 국책사업과 강릉시의 중점 육성사업인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 센터(RRC), 강릉파인세라믹 창업보육 센터(TTC)를 위탁 운영하면서 총 240억 원의 특별 재정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기반 조성, 우수학생 유치 및 교육, 지역사회에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학협력체제 구축, 고급 인력 양성, 산업구조의 개편을 선도하고 있다.

■ 국제 협력

환동해권 국제대학협의체 주도

환동해권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강릉대학교의 주도로 환동해권 국제대학협의체(CLARINET : Coastal Linkage of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Network in Northeast Asia)를 창설하였으며, 회원기관은



▲강릉대 정문

러시아의 극동대학교, 극동해양대학교, 중국의 길림대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일본의 국제대학교, 한국의 울산대학교, 강릉대학교 등 7개 대학과 동북아 접경지역 개발 담당 국제 기구인 UN/TRADP와 환동해연안지역 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인 일본의 동북아경제연구소(ERINA)가 포함된 9개 기관으로 발족하였다.

국제교류 확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강릉대학교는 20개가 넘는 해외 대학교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 및 교수를 상호 교환하고 각종 연구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와 여행 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재학생들에게 적은 비용만으로도 세계의 문화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강릉대학교에는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지에서 온 7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본교 학생들도 세계 명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본교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학당을 개설하였으며, 각종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중앙일보대학평가 국제화부문에서 전국 대학 중 7위를 차지하였다.

■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학

강릉대학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첨단의 교육환경, 최고의 인재들이 만들어 가는 한국 유수의 대학으로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실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명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대학,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학, 국립 강릉대학교가 새로이 도약하고 있다. 